

Initiating Coverage

Analyst 유 창근

02) 6915-5655

changsic12@ibks.com

매수(신규)

목표주가 (신규) 6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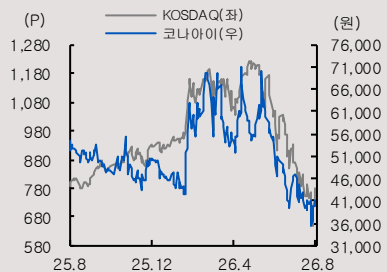
현재가 (8/4) 41,050원

KOSDAQ (8/4)	780.72pt
시가총액	5,978억원
발행주식수	14,563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71,100원
최저가	35,45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61억원
외국인 지분율	3.8%
배당수익률 (2026F)	4.2%

주주구성	
조정일 외 7 인	39.53%
국민연금공단	6.16%
주가상승	1M 6M 12M
상대기준	-3% 0% -24%
절대기준	-13% -32% -25%

	현재	직전	변동
투자의견	매수	-	신규
목표주가	64,000	-	신규
EPS(26)	6,600	-	신규
EPS(27)	7,587	-	신규

코나아이 주가추이



본 조식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코나아이 (052400)

K자형 성장의 최대 수혜주

메탈 카드는 명품의 영역으로 진입

메탈 카드는 플라스틱 카드의 대체재가 아닌 핀테크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카드사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 지출이 동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메탈 소재는 체이스(JPMorgan Chase)의 Sapphire,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의 Platinum 등 일부 카드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점차 프리미엄 카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단순히 메탈 소재가 얼마나 적용되었느냐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에는 귀금속 도금 및 보석 등을 적용한 프리미엄급 메탈 카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며, 차별화된 가공 기술과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예산의 집행 경로로 고착화 중인 지역화폐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의 집행 경로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1) 직접적 예산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2)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와 운영을 대행하여 행정 담당자(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3)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높아 소상공인들의 체감효과가 크고, 4)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화폐 제도가 정치적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적인 변화라고 판단한다.

지역화폐로 하방 지지, 메탈 카드로 상방 돌파

코나아이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64,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지역화폐 운영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면서 코나아이의 위치는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 이는 향후 동사의 실적 하방을 견고히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탈 카드는 일론 머스크의 X머니가 채택하는 등 전방 시장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글로벌 1위 CompoSecure의 점유율을 잠식하며 실적의 상방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단위:억원,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363	3,092	3,710	4,255	4,820
영업이익	334	889	1,140	1,360	1,640
세전이익	406	954	1,217	1,397	1,689
지배주주순이익	303	746	961	1,105	1,336
EPS(원)	2,029	5,110	6,600	7,587	9,172
증가율(%)	4.3	151.9	29.1	14.9	20.9
영업이익률(%)	14.1	28.8	30.7	32.0	34.0
순이익률(%)	12.8	24.1	25.9	26.0	27.7
ROE(%)	16.2	32.6	32.2	29.0	28.0
PER	13.6	8.9	6.0	5.2	4.3
PBR	2.1	2.6	1.7	1.4	1.1
EV/EBITDA	6.9	4.5	2.6	1.7	0.9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메탈 카드는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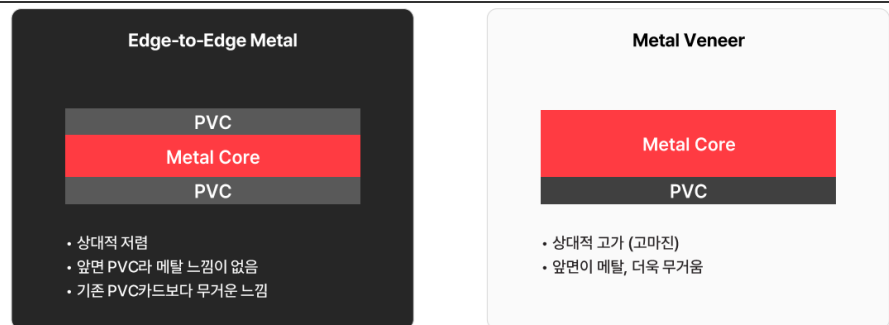
미국 메탈 카드 적용 가능
시장은 연 7천만 장,
미국 메탈카드 발급은
현재 연 3천만 장

프리미엄 카드 시장
내에서도 메탈 카드 소재
차별화 돌입

미국 메탈 카드 시장의 성장 여력은 두 배 이상으로 판단한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프리미엄 신용카드는 2.1억 개이며, 이 중 만료 20%, 분실 및 훼손 5%, 리뉴얼/신규 10% 등 유통 카드의 1/3이 매년 재발급 된다. 메탈 카드가 프리미엄 카드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는다고 가정하면 연 7천만 장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현재 미국 내 메탈 카드 발급이 연간 3천만 건 수준임을 감안해 보면, 메탈 카드의 성장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황이다.

최근, Chase Sapphire Reserve 카드가 기존 Edge-to-Edge 타입에서 Veneer 타입으로 리프레시를 진행하면서 카드 등급 별 메탈 카드 차별화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Edge-to-Edge를 적용하던 카드들이 Veneer를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메탈 카드 시장 내에서도 코나아이가 주력으로 취급하는 Veneer 소재의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프리미엄 신용카드 시장은 연회비 \$100~\$400의 Low-mid, 연회비 \$400~\$1,000의 Premium, 연회비 수천 달러 이상의 Invitation 등급으로 세분화 되는데, Low-mid에는 Edge-to-Edge(플라스틱-메탈-플라스틱), Premium에는 Metal Veneer(메탈-플라스틱)가 고착화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 메탈 카드 소재 적용 방식 별 구분



자료: 코나아이, IBK투자증권

표 1. 프리미엄 카드 세그먼트 별 소재 구분

세그먼트	연회비(\$)	카드명	카드 소재
Invitation	10,000	Amex Centurion Card	Veneer
	2,722	Dubai First Royale Mastercard	24K 금 도금
	795	J.P. Morgan Reserve Card	팔라듐 합금
Premium	895	Amex Platinum	Veneer
	795	Chase Sapphire Reserve	Veneer
	595	Citi Strata Elite	Veneer
	550	BoA Premium Rewards Elite	Edge-to-Edge
	395	Capital One Venture X	Edge-to-Edge
Low-mid Tier	325	Amex Gold Card	Veneer
	95	Chase Sapphire Preferred	Edge-to-Edge
	95	Capital One Venture Rewards	Edge-to-Edge
	95	Citi Strata Premier	PVC

자료: 각 사, 언론종합, IBK투자증권

메탈 카드 성장의 세가지 엔진

1) 핀테크, 멤버십 카드에 메탈 카드 도입

일론 머스크의 X머니
메탈 카드 채택

일론머스크의 X머니가 메탈 카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메탈 소재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Chase와 Amex 등의 프리미엄 카드에만 메탈 소재가 적용되며 대중적인 인지도 확보가 어려웠으나, X머니, Apple Card 등 카드사가 아닌 기업들이 메탈 카드 적용을 확대하며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2) 프리미엄 메탈 카드 등장

Invitation 급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메탈 카드
필요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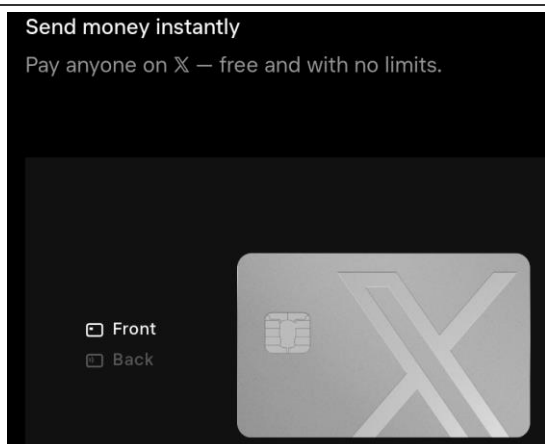
현재 Low-mid에는 Edge-to-Edge(플라스틱-메탈-플라스틱), Premium에는 Metal Veneer(메탈-플라스틱)가 적용되고 있지만 최상위 등급인 Invitation에도 일반적인 Veneer 타입이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핵심 고객인 Invitation급 고객 차별화와 상위 카드로의 고객 유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프리미엄 메탈 카드(귀금속 도금, 보석 장식 등)의 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코나아이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메탈 카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카드사 수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3) CompoSecure 독점 구도 붕괴

Edge-to-Edge 타입 신규
진입, Chase 내 벤더
등록으로 독점 구도 붕괴

CompoSecure는 글로벌 메탈 카드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코나아이가 이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고객사인 Amex의 Veneer 기준으로는 이미 CompoSecure와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한다. 2026년 2분기 Edge-to-Edge 타입에 최초로 진입하며 Mass 시장에서도 CompoSecure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가장 많은 메탈 카드를 발행하는 Chase는 2028년까지 CompoSecure와 독점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Chase가 코나아이를 공식 벤더로 등록하며 공급망 다변화 의지를 드러냈고, 독점 계약 종료 이후 유의미한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그림 2. 일론 머스크의 X Money 메탈 카드 도입



자료: X Money X, IBK투자증권

그림 3. 코나아이 프리미엄 메탈카드



자료: 코나아이, IBK투자증권

지역화폐가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순 없다

- 1) 직접적 예산 지원
- 2) 행정 담당자 업무 대행
- 3) 자영업 체감 효과
- 4)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

낮아지는 수수료율과
서비스 고도화로 경쟁
강도가 낮아지는 중

결제수수료율은 하향
안정화, 반대로 경쟁
강도는 낮아지며 이익
레버리지 확대

지역화폐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의 핵심 집행 경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1) 직접적 예산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2)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인프라와 운영을 위탁하여 행정 담당자(공무원)들의 선호도도 높으며, 3)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높아 소상공인들의 체감효과가 크고, 4)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에 대한 운영 보수(사업비)가 없어지고,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직불카드 수준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의 경우 연 매출 5억 원 미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가 0%이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가맹점은 0.55%로 일반적인 카드 대비 수수료율이 현저히 낮다. 결론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사업 참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낮아지고 있는데,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운영 역량은 높아지면서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 운영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 유인도 적어져 경쟁 강도는 낮아졌다고 판단한다.

이미 지역화폐 시장에서 60~70%의 점유율을 확보한 코나아이 입장에서는 결제 수수료율이 하향 안정화 구간에 진입하였고, 경쟁강도는 낮아지면서 플랫폼 결제금액 성장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26년 플랫폼 사업부 매출 증가분이 대부분 공헌이익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정책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최소 4년 동안은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표 2.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평가항목 및 배점표(2025년 9월)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량평가 (20)	기술인력	기술인력 보유 현황	5
		수행실적	최근 3년 유사 수행실적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등	5
	정성평가 (70)	사업의 이해도 및 제안사 수행역량	사업 이해도 및 수행계획	8
			기술력 및 제안사 역량	5
			발전방안, 차별화	2
		플랫폼 우월성	플랫폼 운영 관리 프로세스	10
			온/오프라인 고객센터	8
			개인정보 보호, 해킹 대응	8
			정책수당 관리 체계성	4
		사용자 및 가맹점의 편의성/유용성 /범용성	소비자 앱, 웹 구성 편의성	5
			다양한 결제수단 적용	3
			가맹점 앱, 웹 구성 편의성	5
			가맹점 모집 지원 및 활성화 방안	2
사회공헌	소상공인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0		
가격평가(10)		결제수수료율	가맹점 결제 수수료율 하향조정 방안	10

자료: 인천광역시, IBK투자증권

실적: 레버리지 구간 진입

2026년은 본격적인 미국 메탈카드 시장 성장과 국내 지역화폐 사업의 이익 레버리지가 확대되는 구간으로 연간 영업실적은 매출액 3,710억 원(YoY +20.0%), 영업이익 1,140억 원(YoY +28.3%), 영업이익률 30.7%(YoY +1.9%p)로 추정한다.

2026년 DID 매출액은
2,315억 원(YoY +12.7%)
수출이 성장을 주도

1) DID(스마트 카드): 2분기 메탈카드 사업부의 이익률은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미국 카드사향 Edge-to-Edge 공급망에 최초로 합류하면서 생긴 변화이다. 기존 Veneer 타입만 취급하던 시기보다 이익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나, 신규 공급망 진입에 따라 이익의 규모가 커지는 변화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향후 프리미엄 메탈 카드 상용화 시 이익률은 재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DID 사업부의 매출액은 2,315억 원(YoY +12.7%), 영업이익은 873억 원(OPM 37.7%)으로 추정한다.

2026년 플랫폼 매출액은
853억 원(YoY +12.3%)
상반기 예산 집중으로
하반기는 쉬어가는 구간

2) 플랫폼(지역화폐): 성장이 대부분 공헌이익으로 반영되는 구간에 진입하였다. 2026년 플랫폼 부문의 매출액은 853억 원(YoY +12.3%), 영업이익은 361억 원(OPM 42.3%)으로 추정한다. 2026년은 2분기에 지방선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영향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 실적은 2분기 집중적인 예산 소진으로 상대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2026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1.15조 원(YoY +15.1%)으로 성장하며, 실적 성장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한다.

표 3. 코나아이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E	3Q26E	4Q26E	2025	2026E	2027E
매출액	583	672	933	904	770	841	1,056	1,044	3,092	3,710	4,255
YoY	7.4%	1.2%	67.8%	50.5%	32.0%	25.1%	13.3%	15.5%	30.8%	20.0%	14.7%
_DID(스마트카드)	398	452	652	552	509	470	716	620	2,054	2,315	2,749
_플랫폼(지역화폐)	145	134	213	267	178	230	192	253	760	853	911
_기타	40	86	67	85	82	141	148	171	278	542	595
매출원가	307	360	481	454	384	462	544	539	1,602	1,929	2,187
YoY, %	52.6%	53.6%	51.6%	50.2%	49.9%	55.0%	51.5%	51.6%	51.8%	52.0%	51.4%
매출총이익	277	312	452	450	385	379	512	505	1,490	1,781	2,068
YoY, %	46.2%	5.9%	89.0%	92.1%	39.3%	21.5%	13.4%	12.2%	55.7%	19.6%	16.1%
매출총이익률, %	47.4%	46.4%	48.4%	49.8%	50.1%	45.0%	48.5%	48.4%	48.2%	48.0%	48.6%
판매 및 일반관리비	150	140	150	162	138	165	161	178	601	641	708
YoY, %	-1.7%	-12.1%	8.7%	-6.9%	-8.1%	18.0%	7.4%	10.0%	-3.5%	6.7%	10.4%
영업이익	127	172	302	288	248	214	351	327	889	1,140	1,360
YoY, %	243.2%	27.1%	198.4%	375.4%	95.4%	24.3%	16.4%	13.5%	166.1%	28.3%	19.3%
영업이익률, %	21.7%	25.6%	32.4%	31.9%	32.2%	25.4%	33.3%	31.3%	28.8%	30.7%	32.0%

자료: 코나아이, IBK투자증권

Valuation: 훗날 후회할 수준의 저평가 구간

적용 EV/EBITDA 멀티플
DID(스마트카드): 7.5x,
플랫폼(지역화폐): 5.0x

B2G 사업의 특성상 높은
상방보다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기대

CompoSecure M&A 당시
2024년 EV/EBITDA 4.5x
2025년 EV/EBITDA 16.8x
인수자와 피인수자 위치에
따른 차이로 해석

목표주가는 DID 사업과 플랫폼 사업의 가치를 각각 합산하여(SOTP) 산정하였다. DID 사업부는 세계 1위 메탈 카드 사업자 CompoSecure의 2건의 M&A 와 단독 상장 당시 부여된 EV/EBITDA를 고려하여 Target EV/EBITDA 7.5x를 적용하였고, 플랫폼 사업의 경우 CAPEX 부담이 없고,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주요 결제 소프트웨어 기업의 평균 EV/EBITDA 5.0x를 적용하였다.

플랫폼(지역화폐):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플랫폼은 결제 단계의 대부분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고정비가 투입되는 대신, 외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적어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난다. 2026년 이후 플랫폼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국가 예산의 주요 재원인 법인세는 3년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반대로 소비 경기는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지역화폐 예산은 최소 2028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며, 영업 레버리지 본격화에 따른 고마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카드(메탈 카드): 2024년 8월, Resolute Holdings의 CompoSecure 인수 당시 기업가치 평가액은 6.2억 달러, 2024년 EBITDA 1.38억 달러 기준 EV/EBITDA는 4.5x였으며, 2025년 11월 CompoSecure의 Husky 합병 당시 CompoSecure의 기업가치 평가액은 23.6억 달러, 2025년 EBITDA 1.65억 달러 기준 EV/EBITDA는 약 16.8x이다. 두 거래에서 사용된 멀티플은 상방과 하방의 보조 지표로 참고하였으며, 실제 적용 멀티플은 기존 Composecure의 단독 상장 당시의 평가받던 멀티플 평균을 고려하여 7.5x로 부여한다. 코나아이가 CompoSecure의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임을 가정하였을 때, 당사가 부여한 멀티플은 보수적인 접근으로 판단하며, 현재 시가총액 5,978억 원은 DID 사업부의 추정 가치인 7,148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표 4. 코나아이 목표주가 산출

항목	적정가치	비고
[A] DID(스마트카드) 사업 가치	7,148억 원	
EBITDA	953억 원	2026년 추정
Target Multiple	7.5x	EV/EBITDA(배)
[B] 플랫폼(지역화폐) 사업 가치	1,922억 원	
EBITDA	384억 원	2026년 추정
Target Multiple	5.0x	EV/EBITDA(배), 주요 결제 소프트웨어 기업 평균
[A] + [B] 사업가치	9,071억 원	
[C] 순차입금	-2,516억 원	2026년
[A] + [B] - [C] Equity Value	11,587억 원	
발행주식 수	14.2백만 주	보유 자사주 소각 가정
적정 주가	64,072원	
목표 주가	64,000원	
현재 주가	41,050원	2026-08-04
Upside	55.9%	

자료: IBK투자증권

코나아이 (052400)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2,363	3,092	3,710	4,255	4,820
증가율(%)	-15.7	30.8	20.0	14.7	13.3
매출원가	1,406	1,602	1,929	2,187	2,415
매출총이익	957	1,490	1,781	2,068	2,406
매출총이익률 (%)	40.5	48.2	48.0	48.6	49.9
판매비	623	601	641	708	766
판매비율(%)	26.4	19.4	17.3	16.6	15.9
영업이익	334	889	1,140	1,360	1,640
증가율(%)	-0.8	166.1	28.3	19.3	20.6
영업이익률(%)	14.1	28.8	30.7	32.0	34.0
순금융손익	33	66	68	37	49
이자손익	-9	15	26	37	49
기타	42	51	42	0	0
기타영업외손익	24	-1	10	0	0
중속/관계기업손익	15	0	-1	0	0
세전이익	406	954	1,217	1,397	1,689
법인세	104	208	256	292	353
법인세율	25.6	21.8	21.0	20.9	20.9
계속사업이익	302	745	961	1,105	1,336
중단사업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02	745	961	1,105	1,336
증가율(%)	4.4	147.1	28.9	14.9	20.9
당기순이익률 (%)	12.8	24.1	25.9	26.0	27.7
지배주주당기순이익	303	746	961	1,105	1,336
기타포괄이익	0	-1	0	0	0
총포괄이익	302	745	961	1,105	1,336
EBITDA	446	1,015	1,263	1,483	1,766
증가율(%)	3.5	127.7	24.5	17.4	19.1
EBITDA마진율(%)	18.9	32.8	34.0	34.9	36.6

투자지표

(12월 결산)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주당지표(원)					
EPS	2,029	5,110	6,600	7,587	9,172
BPS	13,324	17,759	23,178	29,161	36,359
DPS	680	1,200	1,650	2,000	2,400
밸류에이션(배)					
PER	13.6	8.9	6.0	5.2	4.3
PBR	2.1	2.6	1.7	1.4	1.1
EV/EBITDA	6.9	4.5	2.6	1.7	0.9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15.7	30.8	20.0	14.7	13.3
EPS증가율	4.3	151.9	29.1	14.9	20.9
수익성지표(%)					
배당수익률	2.5	2.6	4.2	5.0	6.0
ROE	16.2	32.6	32.2	29.0	28.0
ROA	6.9	15.3	15.7	15.2	15.7
ROIC	151.9	1,527.7	-592.3	-2,495.0	3,509.5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108.9	116.8	98.7	84.8	73.1
순차입금 비율(%)	-54.3	-77.9	-75.3	-78.1	-79.8
이자보상배율(배)	10.8	52.9	46.7	47.7	51.0
활동성지표(배)					
매출채권회전율	8.1	11.3	12.4	12.1	12.2
재고자산회전율	4.8	8.5	10.1	9.1	9.1
총자산회전율	0.5	0.6	0.6	0.6	0.6

*주당지표 및 밸류에이션은 지배주주순이익 및 지배주주지분 기준

재무상태표

(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2,772	3,975	4,967	6,030	7,259
현금및현금성자산	1,498	2,411	3,067	3,911	4,895
유가증권	16	17	0	0	0
매출채권	281	264	332	371	421
재고자산	434	297	437	497	563
비유동자산	1,359	1,616	1,724	1,805	1,894
유형자산	730	921	961	1,013	1,068
무형자산	190	121	108	102	98
투자자산	299	388	396	396	396
자산총계	4,131	5,591	6,690	7,834	9,154
유동부채	2,094	2,949	3,298	3,570	3,84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8	63	73	83	94
단기차입금	416	396	511	580	657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60	63	25	25	26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부채총계	2,153	3,012	3,323	3,595	3,866
지배주주지분	1,985	2,586	3,375	4,247	5,295
자본금	78	78	78	78	78
자본잉여금	660	262	262	262	262
자본조정등	-476	-467	-460	-460	-46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	-2	-8	-8	-8
이익잉여금	1,724	2,715	3,504	4,375	5,424
비지배주주지분	-7	-7	-8	-8	-8
자본총계	1,978	2,579	3,368	4,239	5,287
비이자부채	1694	2573	2773	2975	3169
총차입금	459	439	550	620	697
순차입금	-1,074	-2,010	-2,536	-3,311	-4,218

현금흐름표

(억원)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329	1,524	674	1,139	1,359
당기순이익	302	745	961	1,105	1,336
비현금성 비용 및 수익	216	324	102	86	78
유형자산감가상각비	69	82	94	97	102
무형자산상각비	43	43	29	26	24
운전자본변동	-143	609	-361	-89	-103
매출채권등의 감소	107	12	-66	-39	-49
재고자산의 감소	147	70	-105	-60	-66
매입채무등의 증가	-139	-1	9	10	11
기타 영업현금흐름	-46	-154	-28	37	48
투자활동 현금흐름	-173	-427	-485	-323	-347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88	-233	-142	-149	-157
유형자산의 감소	1	1	0	0	0
무형자산의 감소(증가)	-16	-15	-19	-19	-2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3	-14	0	0	0
기타	7	-166	-324	-155	-170
재무활동 현금흐름	-160	-179	451	29	-28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기타	-160	-179	451	29	-28
기타 및 조정	6	-5	15	-1	0
현금의 증가	2	913	655	844	984
기초현금	1,497	1,498	2,411	3,067	3,911
기말현금	1,498	2,411	3,067	3,911	4,895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매수 15% 이상	Trading Buy (중립) 0%~15%	중립 -15%~0%	축소 -15% 이상 하락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비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43	95.3
Trading Buy (중립)	6	4
중립	1	0.7
매도	0	0

최근 2년간 주가 그래프 및 목표주가(대상 시점 1년) 변동 추이

(▲) 매수, (■) Trading Buy (중립), (●) 중립, (◆) 축소, (■) Not Rated / 담당자 변경

코나아이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가(원)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원)	2026.08.04	매수	64,000		